

수필

이창 목사 // 시인, 소설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중경총회장, 갈릴리교회 원로 목사

사랑하는 J 자매에게



어제 자매님의 편지를 읽고 내가 좋아하던 (아리사)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자매님의 마음 어디에 그처럼 아름다운 영혼의 무늬가 아롱지고 있었는지 가슴이 시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레오, 인간의 마음에는 진주보다 귀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외모만 보고 아찌고 저찌고 평가합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름답습니다. 비록 질투라 할지라도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인간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참회의 눈물은 얼마나 더 아름답습니까? 그 눈물 속에 아웃과 모든 이의 아픔도 함께 그렇그런 매달려 있는 것을 봅니다. 자매님이 아프니까 내가 아픈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이 아프고 같이 우는 것이지요. 이 편지를 쓰면서도 자꾸 눈물이 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좌약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염치없는 일도 아닙니다. 여자로서의 행복, 남자로서의 행복, 12살은 12살의 행복, 40살은 40살의 행복...을 갖고 싶어 하지도, 행복을 바라보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며 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매님이 가슴 두근거리며 기대하듯이 행복은 가장 많이 사랑에서 온다고 동감합니다. 사랑이라면 눈물부터 나는 게 인간이 아닐까요?

옛날 희랍의 <디오게네스>라는 철인은 허수구통 속에 살면서 햇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와서 부귀영화를 준다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나는 바위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저러오고 행복해집니다. 소나무도 나를 행복하게 하고, 바다도 갈매기도, 길살에

돌이 있는 순하게 나부끼는 이름 모를 풀잎 하나도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조각은 또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바람, 계절, 새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얼마나 기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빛이 충만하듯이 기쁨과 행복은 또 얼마나 곳곳에 충만합니까!

사랑하는 J 자매! 사람들에게서 사랑은 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물은 흘러가다가 막히면 굽이치고 그 수로를 바꿉니다. 사랑의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행사가 그러합니다. 인간들에게 사랑은 언제나 굽이치며 흘러가는 물결이고, 때로 그 수로를 바꾸는 미로입니다. 사랑의 길을 온전히 살고 있는 분은 주님 뿐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사랑당어리이며 사랑은 그분에게서 나와서 인간들에게서 병들어 신용합니다. 그러나 바위, 소나무, 하늘, 바다... 그런 것들은 그레오 깨닫습니다. 흘러가는 사랑에 동등 때내려가면 위험합니다. 스스로 깨질 염려가 있습니다. 사랑은 피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할 때의 고통은 뼈가 무너지는 것 같은 것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J 자매! 사랑은 받기보다는 주는 것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주는 것인데,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도 한 팔 끼어서 달달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냥 흘러가는 것

일 뿐이지요. 어쩌면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더욱 사랑하셨는데,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진수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J 자매! 자매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매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은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늘 높은 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내 발 밑의 풀이피리에도 있습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맘 흘러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매님의 아픈 영혼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 땀은 손이 우리의 아픈 영혼을 달랠아 주십니다. 이제 곧 자매님은 유리알 같이 영롱한 행복의 실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작품 노트)

J 자매는 지체부자유와 저지능의 소녀로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이모 집에 얹혀살며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겨울 삭감지처럼 메마른 그 심령에도 사랑이 싹터서 우리 교회 남자 전도사님을 은밀히 짝사랑하며 고민하다가 혼자 감탄기 어려웠던지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많이 울며 이 답장을 썼습니다. 지금 그녀는 미국의 지체부자유 청년과 결혼하여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성탄절 때마다 카드를 보내오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리에는 언제나 할 말을 잃고 감탄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설

2011, 새로운 각오 투철한 사명감으로- 주님은 해로움을 선으로 바꾸셨다!

2011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투철한 사명감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 신의와 정직을 비웃는 이합저합의 기만과 불법행위로 인하여 총회원들이 입은 상처는 말끔히 씻어 버리고 결속을 공고히 하여 새 시대에 걸 맞는 총회의 모습을 갖추는 해가 되어야 한다. 한편, 남로 종교 혼합주의와 반개혁적인 신학사상이 널리 퍼지며 기세를 부리는 시대에 대처하여 성경 중심의 신앙을 견지하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의연한 자세로 방황체시를 하는 교단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연(悠然)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조직체제와 이를 신뢰하고 따르는 총회원들의 단합과 협력이 있어야 한다.

3년 전 돌연히 교단 통합을 제의하는 이들의 간청에 못 이겨 순수하고 양심적인 이들은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르게 될까를 염려하며 고심 끝에 통합추진을 합의하여 1년 6개월만에 걸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합헌법을 제정하는 한편 대통합감사선언대회를 비롯한 지역별 단합예배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합의하고 결의된 대로 2008년 5월 통합된 교단으로서의 첫 총회가 개최되던 당일 오전에 일부 이합저합과 괴약행위를 저행하였다. 그러나 예정된 대로 합법적인 정기총회를 치르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통합된 교단을 파괴하려는 이합저합의 불법적인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하여 갔다. 심지어 반개혁이 넘도록 총회원들이 함께 사용해 온 교단 명칭을 총회원도 모르게 특허청에 등록 신청하였다. 그것도 통합추진을 하는 동안 몰래 진행한 것이다. 그리고는 특허권 침해라는 일도 당도 아니한 주장을 하며 수천 교회와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위협적인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었다. 심지어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고 소송까지까지 하였다. 당연히 무혐의 처리되었고 기각되었다.

이런 외종에서 여의도 원로목사의 조종과 지사 아래 여의도지방교회와 소속 지성전들이 교단총회를 기만하고 교묘한 술수를 행하여 단독총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예상한대로 원적조종을 받은 인천측이 역시 총회를 이합저합 기만하였다. 그리고는 양심 없는 사람들처럼 여의도측과 인천측이 모여서 대통합감사선언대회라는 이름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의 본질을 안다면 이런 일은 감히 할 수 없다. 불법과 기만 행위로 만든 조직이라도 서로 합쳐 세 불타기를 과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보

고 옳다고 손을 들어 준다고 믿는 모양이다. 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저행하면서 예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기증한 행위이다. 삼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였다.

근일에는 한술 더 떠서 처음 이합저합과 통합추진을 하려고 구수회의를 하고 야단법석 하는 모양이 꼴 사납다. 상대가 누구인가? 총회 재산을 횡령 배임(76억)한 것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현재는 또 다른 불법(배임)행위 때문에 사법기관에 의해 기소 당하여 재판 받으면서도 여전히 총회장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자이다. 어떤 내밀한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것인지는 비공개 리에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은 알려진 비밀일 뿐이다. 그들과는 절대로 합치 않았다고 공공연히 발표하더니 지금은 통합하기 위해 서로가 헌법을 뜯어 고쳐느라고 분주하다. 그것도 헌법의 규정과 절차는 아예 도외시키고 실행위원회에서 우격다짐으로 밀어 부치므로 이를 지적하는 실행위원(한법위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가하는 위협을 가하기까지 했다. 세상이 들린다. 원로목사의 지시를 받고 급진화하여 이어져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도 저들이 상부적으로 표방하는 이유는 언제나 '원로목사 중심의 성령운동'을 하기 위해서이다. 어디서 언제부터 원로목사가 없는 성령운동은 없다는 식의 발상이 나왔는지 모를 일이다. 세상이 들어도 수지스롭다.

이들로 인하여 선량한 교역자와 신도들이 그동안 엄청난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신본주의로 심지가 굳은 사람들(사26:3)은 고스란히 남았다. 인본주의로 옹호하는 자들(창19:26)은 걸러졌다. 유적으로는 섬세하나 영적으로는 시원하다는 것이 우리 총회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바깥으로 눈을 돌려 보면 국제 정세는 우리 한반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이 지구촌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진단되고 있다. 또한 신앙적으로는 우상종교와 종교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단이 날로 기세를 더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양 무리를 잡아 삼켜 버릴 정도로 달려가고 있다. 우리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눅18:8) 하셨다. 우리 교단총회의 교역자와 신자들이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에 굳게 서서 전진하며, 경건한 생활에 힘쓰며, 복음전파에 전력하는 이상 아무 것도 두려워할 것 없다. 새해는 주 안에서 더욱 강하고 참신한 교단총회로서 전진할 것이다.

(사)해피나우, 외교통상부 법인허가 획득

해외 구호사업 확대를 한국교회 NGO 위상 제고

(사)해피나우(총재 김삼봉 목사, 이사장 김자연 목사, 사무총장 박원영 목사)는 구랍 7일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허가번호 제681)를 획득했다.

해피나우는 법인 획득을 계기로 해외구호 사업과 아이티지원 사업 등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 교단의 발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한국교회 NGO의 위상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로서 예정활동(총회장 김삼봉 목사) 총회세계선교회(GMS)는 2011년부터 (사)HAPPYNOW와 (사)한민족사랑네트워크 2개의 법인을 운영, 대북지원사업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한민족사랑네트워크가 맡고, 아이티지원사업과 해외재난구호사업은 외

교통상부소관 비영리법인 (사)해피나우가 전개한다. 구랍 23일 해피나우는 롯데호텔월드에서 법인 허가 기념 감사예배와 송년 모임을 가졌다. 이날 총회 100주년 선교국가인 아이티 선교사 김영하, 심미례 선교사 파송식도 함께 개최했다.

1부 감사예배는 허귀호 목사(해피나우 상임이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삼봉 목사(해피나우 총재)의 설교, 박원영 목사(해피나우 사무총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김영우 목사(총신대 이사장), 안병환 목사(수원명성교회)가 축사를 전했다.

이진진 파송식에서는 김자연 목사(한기총 17대 대표회장 당선자, 칼빈대 총장)가 권면, 최병국 목사(GMS본부 총무)가 파송 경과보고를 했으며, 박무용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구랍 22일 (사)해피나우는 왕성교회에서 CCC, 세계선교회운동본부, (사)한민족사랑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추운 겨울을 맞아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 나눔 프로젝트인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 출성예배를 드렸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를 통해 서울 전역 저소득층 총 100세대에게 3만장(한가정당 30장)의 연탄이 전달됐다.

매양신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총회신문
 THE ASSEMBLIES OF GOD, KOREA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관근 목사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677@paran.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동 5가 89-1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관근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식재료

울금 (강황)

울금가격 ♥ 생울금 1kg 5,000원(작업요함)
 한울금 800g 40,000원(즉시 복용가능) 울금분말 80g 35,000원(가정 필수용품)

울금의 주성분 커큐민 항암, 항산화, 당뇨 예방 등에 효과 탁월

비옥한 토양과 일조량이 풍부한 나주 평야에서 무농약으로 재배한 생산자가 직접 주문받고 판매 및 배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교회(나주공산목양교회)에서 자급자족할 요량으로 시작한 울금 농사였는데, 전남권에 사역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직접 방문해서 구매하시기도 합니다. 구매하시면 건강도 챙기면서 농촌교회에 선교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울금은 카레의 주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커큐민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항암효과와 더불어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요즘은 암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실제 카레를 매일 먹는 인도 사람들의 경우에는 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 추천인 -
 김양민 목사
 목양제일교회담임
 기하성 평주평회장

□ **복용요령**

- 즙, 음료수
- 액기스 이용도 가능
- 환은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한번 복용시 20일)
- 문의시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주의사항**

- 임신여성
- 유아, 어린이 금지

□ **재배방법**

- 순복음목양교회에서 유기농(무농약)으로 일찍이 생명의 땅으로 알려진 나주에서 재배함

주문 및 판매 - 순복음공산목양교회 계좌번호 - 농협 637046-52-072121(예금주: 김정식 목사) 휴대폰 - 010-2918-8291(김정식 목사), 010-7498-0698(사모) 전화 - 061-336-0691